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창단식에서 광주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무등의 빛’ 광주FC 뒀다

프로축구 16번째 구단... 145만 시민과 함께 내년 K리그 출격

프로축구 광주시민구단(광주FC)이 화려하게 출범했다. 광주FC는 16일 광주컨벤션센터에서 강은태 광주시장, 조종연 대한축구협회장, 차범근·이희택·박종환 전 국가대표 감독, 김영욱 광주축구협회장, 서포터즈 등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단식을 갖고 한국 프로축구 16번째 구단의 탄생을 알렸다. 구단주인 강은태 광주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월드컵 4강 신화의 무대 광주에서 창단된 팀만큼 바람과 빛처럼 불꽃을 일으켜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 시민들의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창단을 선언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의 이름을 걸고 열정적으로 뛰며 광주축구단의 기쁨이 되어준 상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조종연 대한축구협회장은 “축구의 열망이었던 광주축구단 창단의 약속이 지켜졌다. 경남, 강원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구단의 좋은 점을 수용하고 또 부족했던 점을 거울삼아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희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25

명의 선수들은 서포터즈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단상에 올라 2011년의 선전을 다짐했다. 선수단 대표로 선서를 맡은 금호고 출신의 미드필더 이승기(22)는 “부모님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광주의 일원으로 설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며 “열심히 뛰면서 경기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소감을 언급했다. 올림픽대표 출신의 공격수 김동섭(21)은 “많은 분들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국내 팬들 앞에 첫 인사를 올린만큼 긴장도 된다. 김동



섭이라는 이름을 국내팬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를 대표하게 될 마스코트와 엠블럼도 공개됐다. 빛을 상징하는 불새인 주작을 마스코트로 하고 있으며, 엠블럼은 빛광(光)자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엠블럼은 광주를 표현하는 노란색을 중심으로 붉은색과 고동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했다. 내부의 세로 스트라이프는 무등산 서석대를 상징하며, 주작은 광주FC의 약자인 GFC를 형상화하고 있다. 광주 FC는 21일 공식되는 K리그 FA대항 선수들을 영입해 전력을 완성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3년차 안치홍 “나도 역대 호랑이”

함께 올 시즌 전경기 출장기록을 세우는 등 내야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계약으로 안치홍은 프로야구 역대 3년차 타자 중 역대 연봉 2번째를 기록했다. 투·타 포함 6번째다. ‘폭풍질주’로 후반기 KIA의 히트 상품이 된 외야수 신종길도 2010시즌 연봉 2700만원에서 48.1% 인상된 40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전천후 내야수로 활약한 박기남은 55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되는 등 총 26명이 인상된 연봉을 받았다. 올 시즌 한화에서 KIA로 새 등지를 쓴 투수 안병명을 비롯해 투수 박정철·정성철, 포수 이상우, 내야수 최영규 등 5명은 연봉이 동결됐다. 2009 시즌 MVP 김상현은 무릎 부상 여파로 2억4000만원에서 2억으로 4000만원 삭감된 연봉에 계약을 끝냈다. 외야수 김원식과 나지완은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이 삭감된 1억4000만원과 9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이외에도 내야수 이현곤과 투수 신용운 등 7명의 연봉이 삭감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영건’ 김비오 KPGA대상 ‘3관왕’

스무 살 영건 김비오(넥슨)가 2010 발렌타인 한국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김비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발렌타인 대상과 최저타수상(덕춘상), 신인왕(명출상) 등 3개 부문의 상을 휩쓸었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냈던 김비오는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뛰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조니워커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매 대회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한국골프의 기대주로 거듭났다. 특히 김비오는 꿈의 무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험난한 관문인 퀴리파인스클럽에서 공동 11위에 오르며 한국 선수 중 역대 최연소 PGA 투어 멤버가 되는 기쁨도 누렸다. 장타자 김대현(22·하이트)이 삼금왕과 장타상을 차지했고 JGTO 삼금왕 김경태(24·



16일 '2010 한국프로골프대상 시상식' 축하 공연에서 뮤지컬 배우와 함께 열창하고 있는 김비오(오른쪽). 신한금융그룹)는 해외특별상을 받았다. 올해의 베스트샷 상은 메리조솔모로오른 마지막 라운드 18번홀(파3)에서 출신원을 기록한 강경남(27·삼화저축은행)에게 돌아갔다.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합친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한연희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셴돌’ 이세돌 춘란배 결승 진출

이세돌이 장기인 거친 바둑을 앞세워 8개월만에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다. 이세돌 9단은 16

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우칭위엔(吳清源)기념회관에서 열린 제8회 춘란배 세계 바둑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중국의 신에 구림이 5단을 맞아 백으로 216수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19세의 신에 구림이를 상대로 발 빠른

포석으로 집을 차지한 후 자신의 약한 돌을 공격하는 상대를 오히려 막아지르는 전형적인 ‘이세돌식 바둑’으로 완승을 이끌었다. 이세돌의 춘란배 결승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승 상대는 ‘셴돌 킬러’로 불리는 중국

## 中 신에 구림이 5단에 불계승 허영호 꺾은 세허와 정상대결

랭킹 4위 세허 7단이다. 세허 7단은 허영호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춘란배는 우승상금 15만 달러로 중국이 주최하는 유일할 세계대회다. 결승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명품시계 전남/북 총판**  
A/S는 유명백화점 갤러리어클락 매장과 공유됩니다.

GALLERY O'CLOCK

갤러리어클락 광주점  
TEL. 062 233 2251  
광주 동구 충장로2가 25-1번지 (학생회관 후문 다이소 옆)

\* 본 매장은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 명품시계 취급점 모집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